

“참세상 밝히는 불꽃이 되어”

80년대 중반~
90년대 중반
고등학생운동의
흐름

지금 이 땅의 고등학생들은 누구인가? 17, 18, 19세의 찬란한 청춘들이 그들은? 반세기에 이르는 오랜 '학교 규율체제'에서 지독스런 입시 기제가 되기를 강요받고 있음에도 안간힘을 다해 사랑, 열정, 모험, 탐구심을 구현하려 애를 쓰고 있는 존재들! 청춘의 생명력은 콘크리트 벽의 틈을 뚫고서도 풀잎을 피워내고야 마는 그런 것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 땅의 고등학생들은 병들어 가고 있으며 더 심각하게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일 터다. 그들에게서 억압 기제로서 사회와 학교에 대한 마땅한 비판적 인식과 저항 의지를 발견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건 답답하고 슬픈 일이다. 오늘날 대다수 고등학생들에게 인간의 존엄성, 자유, 정의, 진리, 공동체, 평등, 생명, 역사, 혁명 등의 가치는 단지 '논술' 시험용의 골치 아픈 수사학이 되고 만 것은 아닌가? 그러나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이 늘 이와 같았던 건 아니다. 그들은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바로 그러한 공공적·인간적 가치를 사회와 학교에서 실현하기 위해 떨쳐 일어나 뜨겁게 싸웠다. 사회 민주화와 교육 민주화,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는 철벽을 향해 고등학생 청춘들은 기꺼이 온몸을 던졌던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기'로 일컬어지는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10여 년 간의 고등학생 학생운동을 돌아보고자 하는 까닭은 명백하다. 가히 살인적이라 할 입시경쟁과 비민주적·반인권적 학교 규칙으로 압축되는 학교규율체제는 20여 년 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오늘의 고등학생들에서 엿볼 수 있는 저 침묵과 좌절은 20여 년 전, 선배 고등학생들의 저항과 투쟁의 역사와 만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짧게 요약한 통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 역사의 격류 속으로 뛰어들었던 아름다운 청년들의 기억과 육성을 주된 징검다리 삼고, 고등학생운동에 대한 소중한 연구물인 양돌규의 성공

회대 석사학위 논문 <민주주의 이행기 고등학생운동의 전개 과정과 성격에 관한 연구>(2006년)의 길 안내에 따라 그 발자취와 구비구비들을 만나고자 한다.

고등학생운동의 전개 과정

양돌규에 따르면 '민주주의 이행기'의 고등학생운동은 다섯 시기로 나뉜다.

- ① **태동기**(1985년~1987년 6월 항쟁 이전) 이 시기 가장 큰 교육적 사건은 《민중교육》지 필화사건(1985년)과 한국 YMCA중등교육자협의회 소속 교사들의 '5·10교육민주화선언'(1986년)에 연이은 '실천 대회'로서 이와 관련된 교사들이 해직 등 징계당하는 탄압을 받아 해당 학교 학생들은 분기한다. 다른 하나는 일부 사립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하나가 되어 정상화 투쟁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② **발전기**(1987년 6월 항쟁~그해 12월) 6월 항쟁이 만들어 준 열린 공간에서 학생들은 간선제거나 지명제였던 학생회를 직선제로 바꾸려고 투쟁에 나선다. 또한 그들은 일단 봇물이 터진 사학민주화 투쟁에도 전면에서 나서게 된다.
- ③ **심화기**(1988년 학내 민주화 투쟁~1989년 전교조 사수와 학생 탄압 분쇄 투쟁) 이 시기의 핵심적 사건은 전교조 결성과 관련해 교사 1,500여 명이 일거에 학교에서 쫓겨나는 이른바 '교육대학살'이다. 학생들은 '참교육 전교조 사수'와 '선생님 지키기', 그리고 학생들 자신에 대한 탄압을 막아내기 위해 눈물겹도록 분투한다. 특히 1989년 한 해는 '고등학생운동의 세 가지 성격(교사운동과 결합된 교육운동적 성격, 정치적 고등학생 조직운동적 성격, 학내 민주화 투쟁적 성격)은 서로 연결되고 또한 중첩되어 나타난 기간'이었다.
- ④ **하강기**(1990년 지속되는 고등학생운동에 대한 탄압~1991년 5월 투쟁) 교육 대학살의 잔인한 여음이 지나자 고등학생운동은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진다. 교육현장의 변혁을 바랐던 학생들을 학교 측은 비열하고도 반교육적으로 탄압했고 학생들은 죽음에까지 내몰린다. 대구의 김수경, 충주의 심광보 두 학생의 자살은 극단적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비극적으로 보여주었다.
- ⑤ **전환기**(1992~1994년 조직 사건) 이 시기엔 두 가지 흐름이 있었다. 하나는 '하강기' 때 등장하여 일정하게 계속된 고등학생들의 '정치적인 조직의 흐름'으로서 이는 머잖아 소멸의 운명을 맞이한다. 다른 하나는 '두발 철폐를 이슈로 한 대중적 시위'와 새롭게 나타난 '인권 담론'의 흐름으로서 이것은 점차 청소년 운동의 중심 담론으로 자리 잡는다.

양돌규의 이 같은 시기별 개관에 기대어 역사적 증언의 '징검다리' 들을 만나 보기로 하자.

태동기와 발전기

“그 때부터 선생님들의 소개로 대학에서 하는 문화 공연을 관람했지요. 김지하의 〈밥〉 공연도 보고 춤극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도 봤어요. 정태춘 노래 공연을 보기 위해 수산대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김남주 시인이 자작시를 낭송하는 걸 들었어요. 카톨릭 센터의 〈광주 항쟁 사진전〉을 보고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게 1987년이었죠. ‘아름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도 가졌지요. 거기에서 다른 학교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토론을 하는 중에 학생운동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학생회에 진출하여 학생회를 변화시켜 보자는 얘기도 나왔지요. 그래서 저는 1988년도인 2학년 말에 학생회장에 출마했고 당선되었어요. 떨어진 곳도 있었지만 상당수 학교에서 우리 쪽 친구들이 당선되었습니다. 그해 서울에서만 100여 학교, 전국적으로는 400여 학교에서 학생회 선거가 직선으로 치러졌다고 했습니다.” (이정미)

“부전동 ‘아름 도서관’으로 가 보라고 신용길 선생님이 말씀하셨지요. 거기에서 나중에 ‘부고협(부산지역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 5인 지도부의 하나가 되는 최우성을 만났습니다. 수산대학교 대동제에서는 얼굴만 잠깐 봤던 친구였지요. 어쨌든 거기에서 성모여고 이수정도 만나고 부산진여고 조선영도 만났어요.” (김정갑)

“풍물에 관심이 많아 극단 ‘자갈치’에서 강습을 받고 고등학생 풍물패 ‘얼다숨’을 만들었지요. 학내 활동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교지 편집부와 기독교 중창단에 적극 결합하여 용인고 동아리활동의 초창기를 열게 되었습니다.” (김추중)

“배정고 이상훈과 사직고 권오득과 이정미와 저는 흥사단 아카데미에서 처음 만났지요. 나중에 부산상고 최준향, 용인고 황순주, 해광고 박상현 등을 만났고 진고나 총렬고 등 다른 학교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부산대에서 민교협 주최의 무슨 공연을 보고 난 뒤 이현용 선생님을 통해 부산진여고 임정남, 김현희, 이민정, 정현정 등을 만났는데 후에 배정고 친구들과도 만나서 각자 자기 학교 내 소모임을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모여서 ‘한가지로’란 이름의 소모임 연합체가 만들어집니다. 소모임들 간의 교류와 학생회 직선제가 주요 과제였습니다.” (조선영)

그러나 학생회 직선제 운동을 주도한 학생들은 대개 징계 위협에 직면했고 실제로 정학과 퇴학 처분을 받기도 했다.



기독교회관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고 있는 파주여중고 학생들. 1987년 7월 파주여중고 학생들은 학원 민주화와 학생 권리 보장, 재단 비리에 따른 교육 시설 황폐화 반대 등을 요구하며 1백 일이 넘는 투쟁을 했고 이 불씨는 전국 수십여 곳의 사립고로 옮겨 붙었다.

“정학을 받으면 빨간 줄이 생기는 거라 생각했어요. 징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제 상황을 이야기하면 친구들은 ‘징계하면 가만 있지 않겠다, 들고 일어나겠다’고 했지요. 고등학교 입시를 앞둔 때라서 그랬는지 근신 30일을 받는 것으로 그쳤어요. 그 30일 동안 하루 세 시간씩 교장실에 앉아 있어야 했지요. 다음 해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제가 졸업한 중학교에 직선제가 도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교 때 홍사단 아카데미에서 활동했죠.” (권혜진)

학생회 직선제 쟁취 운동과 함께 가히 살인적인 보충수업·자율학습 철폐 투쟁도 전개되었다. 해마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자살 수는 1988년엔 126명에 이르렀던 것이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다음 날부터 아침 7시 10분까지 등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6시에 나가야 되고 5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죠. 게다가 밤 9시까지 자율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아, 진짜 암울하다, 진짜 암울하다. (...)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들도 괴로웠던 것 같애. 착한 애들이라. 그래서 생각을 했죠. 나는 여기서 도저히 적응을 못하겠구나.” (김미소)

1988년 7월 서울 흥익대 강당에서는 ‘자살 학생 추모제 및 교육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거기에 모인 천여 명의 학생들은 ‘내신 성적 불신 경쟁 잃어 가는 나의 친구’ ‘살인교육 쫓아내고 민주교육 이룩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두 학생이 연이어 자살을 한 어떤 학교에서는 검은 추도 리본을 다는 것을 학교 측이 막자 학생 800여 명이 운동장에서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러한 투쟁은 광주, 대구 등지로 이어졌고 그 결과 시교위들이 보충·자율학습 폐지를 선언하기에 이르기도 했다.

심화기

고난 속에서도 전진을 거듭하던 고등학생운동은 1989년 전교조 결성이라는 전대미문의 역사적 격랑과 조우하면서 큰 전기를 맞는다. 무엇보다도 정권은 ‘전교조 참교육 교사’ 들을 학교에서 추방하고자 했고 그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태였다. 전교조 사수와 '선생님 지키기' 투쟁은 정권과 학교 당국으로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탄압을 받았지만 학생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광주의 '광고협(광주지역고등학교대표자협의회)' 과 부산의 '부고협(부산지역고등학교대표자협의회)' 을 비롯, 마산·창원 등 여타 지역에서도 '고등학생협의회' 결성 투쟁이 전개되었다. 학교 소모임이나 소모임 연합체와 같은 비공개 조직과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한국고등학생기독교운동총연맹(KSCM)과 흥사단 고등학교 아카데미 같은 공개 조직은 전교조 사태에 직면하여 함께 싸웠다. 그들의 당면 투쟁은 전교조 사수와 학생 탄압 저지였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가 전교조 지지 차원에만 머물렀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밝히고 있었다.



학생들의 '선생님 지키기' 투쟁을 보도한 신문 기사.

“우리 전 고등학생은 선생님들의 뜻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정부의 파면과 해임 조치에 맞서 선생님을 지키겠다는 의지로써 한치의 흔들림 없이 끈끈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 우리가 단결된 힘으로 뭉쳐 있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교원노조 지지에서만 발생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교육 주체로서 교육 현장에서의 소외와 억눌림이 교원노조의 참뜻과 함께 폭발한 것이다.” (〈광고협 결성 선언문〉)

“우리 학우들의 단결된 힘으로 우리를 입시 경쟁과 철저한 이기주의적 인간으로 내몰고 있는 사회 풍토를 개선하고 민주시민의 예비 단계로서 모든 학생회 활동들을 자율적으로 민주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학우들의 자율적 능력을 무시하고 단지 의무와 순종적 인간만을 요구하는 관료주의적 교육자와 재단에게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여야 하며 또한 이것은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마창고협(마산·창원지역고등학교대표자협의회) 발족 선언문〉)

그러나 이 같은 뜨거운 '선언' 은 출발부터 엄혹한 시련을 요구했다.

“1989년 8월 3일은 부고협 출범 거사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 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우리는 오전엔 시내에 나가 대회를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지요. 경찰은 핵심 활동가의 발을 사전에 묶어 놓기 위해 학교로도 집으로도 들이닥쳤기 때문에 대회 전날엔 야에 집에 들어가지 않은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날 전경 12개 중대가 부산대 정문과 후문은 물론 식물원 입구까지 봉쇄하고 검문 검색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대회를 강행기로 했지요. 부산대 학생회의 도움으로 삼삼오오 개구멍으로 잠입했는데 나중에 보니 대학생을 합해서

350명 쯤이 모였더군요. 대회 시작과 동시에 백골단과 전경들이 최루탄을 쏘며 무차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도서관 안으로 도망가는 고등학생들을 잡기 위해 유리창을 깨면서 열람실까지 진입했어요. 방학 중이라 대학생들도 거의 없어서 우리들은 완전히 역부족이었지요. 우리 의장단은 지명수배가 되었지요. 일부 학교 대표자들이 반대도 했지만 8월 13일 2차 집회가 결의되었습니다. 그날은 수산대학교에 약 50명 정도가 모였는데 전경들이 난입해 곤봉으로 우리를 구타하며 잡아갔습니다.” (권오득)



1989년 광고협(광주지역고등학교대표자협의회)의 결의대회 모습.

“당시 우리(집행부)는 도망 다니면서 엄청난 공포감과 싸워야 했습니다. 전교조든 시민사회단체든 대학이든 그들에게엔 조직이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었습니다. 부고협 출범식을 강행하면서 우리는 1기 의장단이 즉각 잡혀서 무너질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그럴 경우를 대비해 2기 지도부를 결성해 놓았지요. 예상대로 그날 우리는 금정경찰서로 달랑 잡혀갔습니다. 자술서를 쓰고 부모님에게 인계되었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로 부고협 간부들의 자퇴서를 받으라 지시했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교장선생님에게 자퇴서는 못 쓰니 잘라달라고 했지요. 고3이 한 달 동안 학교도 안 가고 도서관으로 거리로 떠돌다가 결국 자퇴서를 썼어요. 학교 소모임 멤버 중의 한 친구가 학교로부터 협박도 당하고 하다가 자살을 한 것이 그해 가을이었는데 그 친구 보내고 다들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낙동강에 비친 노을을 바라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승중)

하강기

학생들이 처절하게 ‘선생님 지키기’ 투쟁을 했는데도 1,500여 교사가 일거에 학교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가을이 찾아왔다. 그러나 그들의 투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근신, 각서, 감금, 구타, 강제 자퇴, 퇴학, 그리고 체벌 사망과 자살에 이르기까지 그 수가 수백 명에 이르도록 학생들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었고 학생들은 그것에 저항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오랜 시간 자주 악몽을 꾸곤 했다. 그 꿈에서 나는 학생주임에게 맞고 있었다. 소리를 지를 만큼 아픈데도 입술에 피가 날 정도로 참고 또 참는 꿈. (...) 그해 여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다섯

분이나 해직된다는 소식에 학생회장인 나는 긴급 학생회의를 소집했다. 방송을 통해 아이들에게 호소하기로 했다. (...) 다음 날 준비한 원고를 들고 들어가 방송실 문을 잠갔다. 저지당하지 않고 무사히 끝까지 읽어 나갈 수 있길 바라면서. (...) 나는 곧바로 교무실로 끌려갔다. 학생주임이 내 머리채를 잡고 따귀를 올려붙였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굴하지 말아야지.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며 정신을 다잡았다. (...) 우리는 다음 계획을 논의했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 학교 앞 계단에 모여 집회하기, 피켓을 들고 양정 로터리 걷기. 다음 날 쉬는 시간 본관 건물 앞 계단은 아이들로 가득 찼다. 우리는 외쳤다. '우리 선생님을 돌려 달라. 학생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 (...) 겨울이 오고 대입 원서를 쓰는 날 학교장의 도장(직인)을 찍어 주고 있는 학생주임을 대면하게 되었다. 그는 말했다. '너 같은 게 대학에 들어가서 뭐 할 건데? 빨갱이 짓이나 하고 순진한 애들 꼬드겨 민주니 뭐니 떠들어댈 건데?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말하면 내가 도장을 찍어 주지.' 나는 내민 원서를 도로 집어 들고 그에게 똑바로 말했다. 당신 도장은 필요없다고. 오히려 사과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라고.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저 사람에게도 심장 두근거리는 청년 시절이 있었을까? 경쟁으로, 시험으로 내몰린 아이들의 죽음 앞에 눈물 흘려 본 적이 있었을까? 나는 그해 대입 시험을 치지 않았다." (이정미)

그렇게 1989년의 해는 저물었지만 다음 해인 1990년 10월 부고협은 40여 개교 1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2기를 출범시킨다. 11월 3일 학생의 날을 기해서는 서울을 비롯한 부산, 광주, 대구, 인천 등 20여 개 지역에서 경찰의 대회 장소 봉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념식이 열렸다. 거기에는 또 다른 절절한 까닭이 있었다. 그 몇 달 전인 6월엔 대구 경화여고 3학년 김수경이 전교조 사태 이후 학교로부터 문제 학생으로 몰



1990년 6월 24일 경북대에서 열린 '고 김수경 학생 추모 학생인권유린 방지와 자주적 학생활동 보장을 위한 교사·학생·학부모 결의대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영정을 들고 북문으로 나가려다가 경찰의 최루탄에 저지당한 채 중앙도서관 앞에 모여 있다.

리고 부당한 구타를 당하다 못해 '전교조를 지지했던 게 죄가 된다면 법정에서 몇몇이 죄값을 받고 싶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라는 글을 담임교사에게 남기고 투신자살을 했고, 그로부터 석 달 후인 9월에는 충주고 2년생인 심광보가 '농민이여, 농민의 깃발을! 노동자여, 노동의 횃불을! 전교조여, 참교육의 함성을! 때는 왔다' 라는 쪽지 글과 편지들을 남기고 분신 후 투신했던 것이다. 반교육의 철벽 앞에서 최후의 극한적 항거였다. 절망적 희망이며 희망적 절망이었다.

1991년 4월 명지대 강경대 학생이 경찰 폭력에 의해 죽고 다른 대학생들이 잇따라 분신자살하면서 그해 5월 범국민적 정권 타도 투쟁이 전개됐다. 이때 고등학생들도 조직적으로 거리 시위에 나선다. 이를테면 5월 9일에 열린 '민자당 해체와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회' 날엔 상당수 지역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시위대와 함께 '참교육을 말살하는 노태우 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외쳤고, 같은 달 18일 서울에서 열린 국민대회에서는 '한국고등학생기독교운동 서울연맹'의 깃발을 비롯, '새날을 여는 고등학생' '민족의 양심 고등학생' 같은 피켓도 등장했다. 그들의 구호는 '쟁취 참교육' '타도 노태우' 였다.

전환기, 그리고 맺는 말

노태우 정권의 마지막 해인 1992년은 물론이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과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복직이 이루어진 1994년에도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감시와 탄압은 학교나 교육청 등 교육 당국뿐 아니라 공안 당국에 의해서도 계속되었다. 정권 측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조작한 공안 사건에 고등학생 조직이나 동아리를 끌어들이기도 하고 공개된 문화 행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을 '의식화' 운운하며 강압적인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1994년의 '새날열기 사건(고등학생 대상 잡지인 <새날열기> 편집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혐의가 씌워짐)과 '쌤 사건(청소년단체 '쌤'에 주체사상을 학습·전파하는 이적단체라는 혐의를 씌우고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조사함)'이 그런 경우들이지만 여기서는 자세한 언급은 생략기로 한다.

그런데 이 글을 끝맺으면서 우리가 곱씹어 보고자 하는 것은 양돌규가 적시한 '전환기'의 '전환'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에 관해서이다. 그것은 물론 그가 말한 바 1992년 이후 광고협이나 부고협과 같은 고등학생운동체가 소멸 일로를 걷는 동안 나타난 운동 담론의 변화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1993년 서울 강남의 두 고교에서 벌어진 '두발자율화'와 '야자·보충수업 폐지' 요구 시위가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듯이 '인권담론을 근간으로 한 운동'으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사회민주화·교육민주화·사학정상화·참교육·인간교육이라는 거대 담론으로부터의 '전환'이었다. 그건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였다.

2008년, 우리 교육현장의 핵심 담론은 무엇인가? 혹은 무엇이여야 하는가? 학생들의 그것은 또 무엇인가? 20년 전과 결코 다를 바 없는 학교규율체제 아래의 그들의 인권 상황? 그때보다 더욱 단단해지고 사악해진 경쟁 체제? 가속화하는 전면적 교육 시장화? 아니면 전 지구적 신자유주의의 파고? 물론 이들 중 어느 것도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건대 이 모든 질문들은 지금의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 것일까? 또한 문건대 그들에게 오늘, 진정 새로운 '전환'이 요구된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㉒**

(이 글의 제목 '참세상 밝히는 불꽃이 되어'는 충주고 심광보 열사 1주기 추모집 제목이다.)